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용의



새해를 며칠 앞두고 오랜만에 밤을 새워가며 소설을 읽었다.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고(東野圭吾)의 「편지(手紙)」라는 소설이다. 히가시노 게고는 한국에서도 그의 작품이 여러 번 번역돼 소개되었다.

언젠가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다가 하네다공항에서 시간을 때울 요령으로 집어 들었던 문고관 책이다. 책의 제목에 끌려서 사게 되었는데, 세밀에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 뛰어나왔다.

소설의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부모 없이 어렵게 살아가던 형제가 있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결국 형은 강도살인죄로 복역하게 된다.

혼자 남은 동생은 흉악한 범죄자의 동생이라는 낙인이 더해져서 사회적으로 거듭되는 좌절과 차별을 겪게 된다. 그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형과 바깥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동생은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다. 동생에 대한 형의 미안한 마음, 형에 대한 동생의 애증의 감정이 편지를 통하여

올해는 편지를 쓰자

실은 내가 좀처럼 책을 덮을 수 없었던 이유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편지」 때문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에서 편지가 사라졌다. 해마다 이맘때면 주고받던 연하장마저도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물

이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결과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만 해도 살아오면서 많은 편지를 썼다. 편지와 관련된 추억 또한 적지 않다.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꾹꾹 눌러쓰던 국군아저씨께 드리는 위문편지, 꽃잎이나 네일 클로버가 첨부

된 연애편지, 친구에게 절을 사파하던 사과의 편지, 「아버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든 부처달라는 편지 등등.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 그 두 엇보다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툴(communication tool)이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유독 「소통과 공감」이라는 말이 각종 매스컴을 떠돌아난다.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소통, 친구 및 연인 사이의 소통, 직장에서 동료 사이의 소통, 사회적 이슈와

결과일 수 있다. 젊단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마음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소통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새삼 편지의 소중함을 생각해본다. 부부싸움 후에 배우에게 슬쩍 건네는 편지, 자식을 애단한 후에 부모가 쓰는 편지, 멀리 떨어져 사는 친지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 편지, 직장 동료에게 보내는 화해의 편지는 상대방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줄 수도 있다. 흥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의 해」인 올해에는 입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혹은 「똑바로 하라」고 일침을 가하는 편지도 좋을걸 싶다.

편지는 마음의 울림이다.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나 배려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참선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 울림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참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감동도 를 질질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소통이 유난히 강조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휴대폰을 비롯하여 빠르고 편리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툴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필요성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으나, 소통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신승희

어느 짚은이에 대한 회상

려나갔고, 어머니도 파출부 등 고된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했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공부도 썩 잘했다.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으나 아이는 아무런 불편이나 처지 비판 없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였고, 소위 명문대리 불리는 국내 최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다.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갑자기 암 판정으로 병석에 눕게 됐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하여 파출부 일을 그만 두면서 아이는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상가상으로 혼자 신분으로 굳에 입대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아들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면 현역입대를 하지 않고도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지방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한 뒤 신설금으로 미리 돈을 받은 아이는 병역특례업체 사장에게 돈을 건네 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

필자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11명의 범죄자를 변호한 경험을 풀어낸 독일 변호사 「페르디난트」의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들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

그 책을 읽으며 필자에게도 문득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다. 40대의 어느 부모가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것도 외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꾸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여름 아이는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아들의 구속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그 검사실로 찾아와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은 자신이 일당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친부모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니” 끝

조리면서 자신을 원망했다. 그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몰라 아이에게는 입양했다는 말을 치마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필자는 병역특례비리 기획수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최고학부에 다닌다는 명문대생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는다는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구속한 이후에야 오히려 부모를 통해 그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필자가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연한 고위층·사회지도층 자제의 병역 기피 풍조를 바로잡고 공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위론 앞에서, 그 아이의 성장배경이나 구체적 사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 구속 수사가 정말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이후 그 아이는 병역특례자(산업기능 요원) 신분으로는 처음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3개월여가량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사정이 참작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필자는 위 사건을 계기로 걸으면 드러난 불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면에 숨겨져 있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노력하게 됐다. 올해로 검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12년째를 맞이했으며, 들어 그때의 다짐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된다.

비록 한 순간의 실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아이가 지금쯤은 마치지 못한 병역의무까지 이행하고 어느덧 30대 초반의 청년이 돼 있을 것이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아이의 행운을 빌어본다.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기고



최종만

박건희씨를 추모하며

합쳐 14개의 전시행사가 계획되었고, 140여 개의 공연 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예술축제식으로 치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참고가 될 국제행사로는 대전엑스포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지방이 최초로 주관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모든 면에서 족발불금이었다.

그런 와중에 국제행사라면 대전엑스포와 같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홍보·안내시스템을 깔아야 할 것 아니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전문업체에 비용을 알아보니 10억 원 이상 듣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시행사 종작은 규모는 5천만 원 정도로 추진됐고, 전시장 건축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이라고 해보았을 때 100억 원 정도로 불과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정준모 전시부장이 한 짚은 사업가를 데리고 왔다. 박건희 씨였다. 인터넷? 흠

페이지? 그게 뭐지요? 비용은 제로?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은 서너 명? 황당했다.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홈페이지가 생신작업. 광주비엔날레의 행사내용과 행사장 안내를 홈페이지에 한 번 올리는 정도로는 이용도가 별로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황을 알리는 일인데, 특히 외부 사람들이 날마다 변하는 숙박시설 예약 상황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수준에서는 홈페이지가 생신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그쳤다. 그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각 호텔에서 날마다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설치해 연결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듣다고 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질 테니 자료를 보내면 날마다 생신작업만 하기로 했다.

시내 100개의 호텔, 모텔을 고르고 직원

들 한 사람당 서너 개씩 책임을 맡겼다. 날마다 전화로 행사기간 동안의 잔여 객실 수를 파악해 보고하면 그 걸 표로 작성해 팩스로 ‘다음’에 보냈다. 그리고 행사가 개막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박건희 씨의 부임이 알려졌다. 과로사였다는 것이다….

창설대회는 성공리에 끝났다는 평을 들었고, 비엔날레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당시에는 유례가 드물 만큼 25만 건이 넘었다. 마지막엔 배너 광고료라고 하면서 5백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오히려 받았다. 그 후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사이트로 성장했다.

몇 해 전 박건희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설대회 공연자 협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그쳤던 비엔날레재단이 늦게나마 그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니 지극히 반갑다. 문학 절 뺨한 이야기를 중요시 사로 다뤄 광주비엔날레와 짧은 IT전체와의 인연을 독자들에게 알린 광주일보에게 감사를 표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소독 엄망 위내시경 검사 강력 규제해야

우리 성인들은 나이가 들면 1년에 1번씩은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한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직장 건강검진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1~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한다.

하지만, 일전에 보도된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위내시경의 불편한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방송은 보니 내 위장 안으로 들어가는 카메리의 불결한 소독실태가 적나라하게 나왔다.

위내시경 검사는 긴 관을 입을 통해 밀어 넣어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 관은 식도와 위, 심지어 심장까지 도달한다. 따라서 내시경

린더에 내시경 삽입부만 담가 소독하거나, 소독기만 믿고 소독 전 세척단계는 건너뛰는 곳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포ップ이라는 기구의 소독 상태였다. 포ップ은 위 속 균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을 채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방송에 보니 포ップ을 멀균상태로 보관하는 곳

은 단 한곳도 없었다. 심지어는 포ップ을 공기 중에 방치하는 것은 물론 벽에 걸어놓은 곳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소독 여부와 안전성 여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 감시를 해주기 바란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율목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오피니언

시설

'소값 파동' 유통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축산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바닥

을 모르고 추락하는 소값 폭락에 따라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놔들리면서다. 급기야 자식 같은 소를 반납하겠며 도심에 내다버리는 지경이다.

사료값은 2년 전에 비해 16.2%나 오른데다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소를 키울 수록 빛만 뛸어난 때문이다. 송아지를 2년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11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젖소 수송(1kg)은 1만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기현상은 축산농가→수집부→도축·가공업체→중간 유통업체(도매상)→대형 유통업체(소매상)→소비자 등 많은 단계를 거치며 유통마진이 더해지는 유통구조가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소값 안정대책으로 암소 도태자금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해 2년간 농가에 보조금을 주고, 군납용 수입쇠고기 전량 한·육우 고기로 대체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유통구조 개선이나 소비 촉진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예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 물론 소값 폭락했으면 소비자 가격도 떨어져 소비가 촉진돼야 하지만 시중을 심지어는 대형마트에선 여전히 예전 가

사실로 드러난 범인 어린이집 불법 거래

원생 수에 따라 억대의 권리금을 쟁기며 불법 매매를 한 범인 어린이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상 매매가 금지된 범인 어린이집이 정부보조금에 따른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8일 범인 어린이집을 전문 브로커에 맡겨 불법매매한 혐의로 광주 모 어린이집 대표 A(52)씨 등 어린이집 6곳 원장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어린이 1명당 1000여만 원의 권리금을 책정해 최고 7억 원까지 주고 받는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광주지역 어린이집 2곳이 운영권을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거래했다가 불합친데 이어 또다시 적발된 것이어서 이런 불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불법 거래가 이렇게 만연할 때까지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

정부는 무엇보다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경찰도 이런 불법이 더 이상 자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린이집이 이처럼 매매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우선 당국의 관리부실과 제도상 하점에 있다. 지난 2006년 어린이집 설립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설립이 어렵게 되자 인가증과 원생에 대해 값은 매개 사고 파는 사례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적발이 없었다는 것은 당국이 이들의 전횡을 사실상 방지해온 때문이다.

거액의 권리금을 낸 어린이집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수밖에 없다. 교사·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책정해 최고 7억 원까지 주고 받는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광주지역 어린이집 2곳이 운영권을 수백만 원의 월 임대